붙임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2019. 6. 26

관계부처 합동

## 순 서


Ⅰ. 섬유패션산업 현황 ····· 1

Ⅱ. 섬유패션산업 진단 및 시사점 ····· 3

Ⅲ.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 7

< 글로벌 경쟁력 제고 >

1. 스피드팩토어로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 ····· 8

2. 고부가 첨단 산업용섬유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 10

< 당면 현장애로 해소 >

3. 인력유입 확대를 통한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 13

4.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 제조경쟁력 향상 ···· 14

5. 수출 기업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16

Ⅳ. 향후 추진일정 ····· 17

# Ⅰ. 섬유패션산업 현황

## 1 개발연대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사양산업으로 쇠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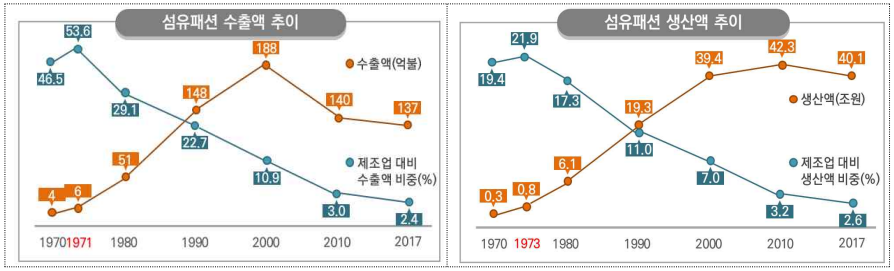
○ 60년대부터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며 **'87년 국내 업종 최초 100억불 수출** 달성('63~'87년 수출 1위)

* 수출(억불/전체 대비 비중) : ('70) 4(47%) → ('71) 6(54%) → ('80) 51(29%)→ **('87) 118(25%)**

○ **'70년대** 섬유패션산업은 전체 대비 **수출 54%**('71), 제조업 중 **생산 22%**('73), **고용 36%**('77), **업체수 27%**('77) 담당

* 고용(천명/전체 대비 비중) : ('70) 265(31%) → **('77) 684(36%)** → ('90) 647(21%)→ ('00) 396(15%)

**<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수출 및 생산 추이 >**




○ '00년대 이후 설비투자 감소 및 인력난 심화, 대규모 생산기업 **해외 이전**으로 **국내 제조기반 붕괴** 등 **성장엔진 부재**로 급속히 쇠락

* '97년 전국은행연합회가 섬유와 신발을 사양산업으로 분류, 대출한도 축소, 심사기준 강화

**< 국내 설비투자 추이 >**




**< 해외투자 추이 >**






## 2 최근 섬유패션산업 동향

○ **(수출)** 중국, 동남아 등 후발국의 **해외시장 잠식**으로 **감소세**

* 수출(억불) : **('00) 188(5위)** → ('15) 145 → ('16) 138(15위) → **('17) 137(17위)** → ('18) 141

○ **(고용·생산)** 10인 이상 기업의 **고용 크게 하락**(영세화, 일용직화), 국내 인건비 상승,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일감감소로 **생산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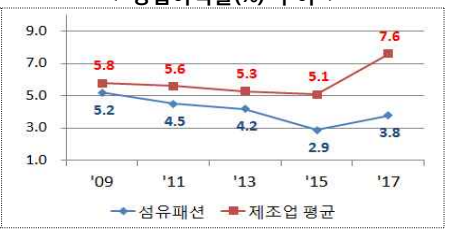
* 고용(천명, 10인 이상) : ('13)169 → ('15)163 → ('16)159 → ('17)150 ('13년 대비 11.2%↓)
(cf. 1인 이상) : ('13)301 → ('15)306 → ('16)299 → ('17)294 ('13년 대비 2.2%↓)

○ **(경영환경) 영업이익률 감소** 추세, 제조업 평균과의 격차 확대

**< 국내 생산 및 고용 추이(10인 이상) >**




**< 영업이익률(%) 추이 >**




○ **(산업구조)** 섬유패션 48천개 기업 중 **88%가 10인 미만 영세기업**

- **대기업**(효성, 코오롱 등)은 **섬유원료 생산·공급, 중소기업**은 대·중견 기업에서 섬유원료를 조달받아 **원단 및 의류 생산**

* 전자, 자동차 등에서는 대기업이 밸류체인의 마지막 단계인 조립 담당

**< 국내 他산업 대비 섬유패션산업의 특성 >**




- 산업 특성상 **스트림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나, 대기업의 의식 부족, 기업의 영세성, 교류부족 등으로 **협력 미흡**

* 일본 '도레이 합섬 클러스터' : 도레이를 중심으로 원사와 중소원단업체간 제품, 디자인, 용도 개발 등 상생협력을 통해 최적소재의 생산체제 구현

# Ⅱ. 섬유패션산업 진단 및 시사점

## 1 문제점

### ◇ 기업 및 정부의 혁신노력 부족

○ **(기술투자 부족)** 선진국이 **산업용섬유, 高감성·기능성 소재**에 주력한데 반해, 우리는 低부가가치 **의류용·범용 직물 중심**

* 산업용섬유 수출비중 : (한국) 23%, (미국) 48%, (일본) 39%, (EU) 44%, (독일) 49%

* 국내 산업용섬유 기술수준 : 日의 65%, 美의 68%

➪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개도국과는 기술평준화**

○ **(OEM에 안주)** 선진국은 **브랜드 및 마케팅 파워**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 반면, 우리 업체는 **OEM 방식**(일부 ODM) **지속**

* 브랜드파워 : 루이비통, 헤르메스, 구찌, 샤넬 등 / SPA : ZARA, H&M, 유니클로 등

* 국내 대표적인 OEM(또는 ODM) 업체 : 한솔섬유, 한세실업, 세아상역, 영원무역 등

➪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국내 OEM 산업 붕괴 위기**

**< 패션의류 브랜드 Top 100 현황(시가총액 기준, '16년) >**

| 국가 | 미국 | 이탈리아 | 독일 | 일본 | 홍콩 | 프랑스 | 중국 | 한국 |
|---|---|---|---|---|---|---|---|---|
| 브랜드수 | 43 | 7 | 5 | 4 | 4 | 3 | 3 | 0 |

○ **(정책 비효율성) 기술력 제고**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편중, 실질적 수혜자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미흡**

* (예) '밀라노프로젝트'('99~'03년, 총 6,800억원 / 국비 3,670억원)
: 대구·경북을 패션·디자인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아래 **지역의 특장점인 화섬 등 직물산업과 무관한 패션·디자인 관련 인프라 구축**에 치중

➪ **정부와 업계는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失機



### ◇ 낮은 진입장벽/기술격차로 개도국의 맹추격

○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이 **우리의 해외시장 잠식**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용·범용 원단**의 **경쟁력** 급격히 하락

* 수출순위(WTO, '17) : ① 중국(35.8%), ② 인도(4.8%), ③ 이태리(4.7%), ④ 베트남(4.7%) ..... **⑰ 한국(1.6%)**

* 원단수출(억불) : ('13) 93.7 → ('15) 83.7 → ('17) 76.4

➪ **선진국 기술력과 후발국 가격경쟁력 사이 넛크래커 상황**

### ◇ 생산비 상승, 청년 인력부족 등 국내 생산여건 악화

○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 임금상승에 취약,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봉제, 범용 소재, 염색업종**順으로 **해외이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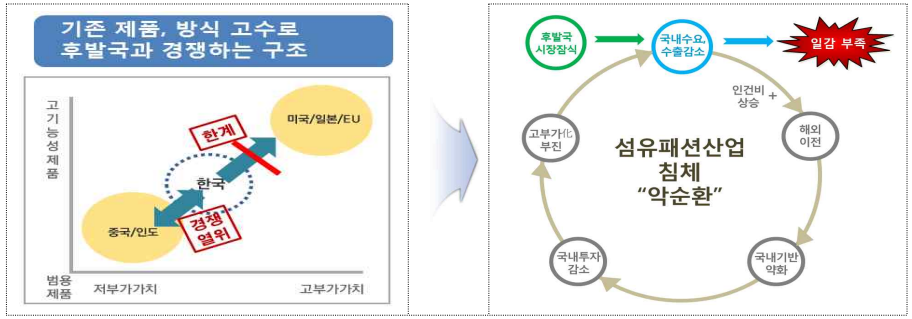
* 국내 의류제조 임금(月) : ('04) 143 → ('10) 206 → ('17) 264만원 (연평균 4.8% 증가)
- '14년 기준, 베트남($0.74/時)의 10배, 인도($1.12)의 7배, 중국($2.65)의 3배 수준

** 해외 신규법인수(개) : ('80년대) 111 → ('90년대) 1,705 → ('00년대) 3,020 → ('10~'17) 951

○ 다른 업종에 비해 부정적 이미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국내 **청년층의 구직기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

* 50대 이상 종사자('17) : 섬유패션 45%(제직 54%, 염색·가공 57%), 제조업 평균 19%

➪ **국내일감부족 → 생산감소 → 투자위축 등 악순환 고착화**



## 2 잠재력(기회요인) 및 시사점

### ◇ 他 제조업 대비 높은 고용, 부가가치 창출 산업

○ 섬유·의류는 여전히 많은 **기업수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을 넘는 **고용창출** 및 **高부가가치**** 산업

* 사업체수 48천개(1인 이상, 제조업 전체의 11.0%), 종사자수 294천명(7.2%, '17)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4) : 9.7 (제조업 9.3) / 실질부가가치율(%, '17) : 23.6 (제조업 23.1)

### ◇ 우리는 제조 선진국 중 유일하게 균형잡힌 스트림 보유

○ 선진국은 자국內 제조기반이 취약*하나, 우리는 48천개 기업이 絲·원단·염색·봉제 등 全스트림에 걸쳐 **균형있는 제조기반 및 경쟁력 보유**

* 미국·일본·유럽은 일부 럭셔리 패션의류 스트림 및 첨단 섬유소재에 특화된 기반 확보

| ('17년 기준) | 원료·원사(실) | 원단(편직물) | 봉제·의류 | 합계 |
|---|---|---|---|---|
| 기업수(개) | 2,252 (대기업 4) | 20,477 (대기업 0) | 25,118 (대기업 3) | 47,847 |
| 10인미만(비중) | 1,856 (82%) | 17,752 (87%) | 22,898 (91%) | 42,506 (89%) |
| 종사자수(천명) | 22 | 132 | 140 | 294 |
| 생산액(조원) (비중) | 6.7 (17%) | 17.0 (42%) | 16.4 (41%) | 40.1 (100%) |

* 기업수, 종사자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인 이상) / 생산액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10인 이상)

### ◇ 일부 첨단 산업용섬유 글로벌 경쟁력 보유

○ **스판덱스**(효성, 세계 1위), **타이어코드**(효성, 세계 1위), **저융점섬유**(휴비스, 세계 1위)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는 **글로벌 경쟁력** 보유

○ 최근 탄소섬유, 아라미드, 저융점섬유, 부직포 등 **수출 증가**

* '18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탄소섬유 34%, 아라미드 27%, 저융점섬유 21% 등 평균 14.5% 증가, 섬유패션 전체 수출액 증가액 4억불(137→141억불) 중 2억불 차지

➢ **他산업과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 4차산업혁명 선도할 新산업으로 탈바꿈**
- **[공정] ICT, 5G 활용, 全제조공정 스마트화 → 스피드팩토어 확산**
- **[소재] 자동차, 항공 산업 수요 대응 → 고부가 첨단소재 중점 육성**
- **[패션] 동대문 특장점(스피드, 집적화)+ICT → 글로벌 개인맞춤 패션허브 부상**
  * 4.25일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섬유패션업계 현장애로 집중해소 ⇨ 강소기업 육성 및 수출기업화**



## [참고] 국내 섬유패션산업 부문별 현황

### 1. 의류용 섬유소재 : 생산 37%, 수출 61%, 업체수 15천개

○ **(면사)** 국내 생산원가 상승 등 채산성 악화, 설비노후화로 **국내 일부 공장 가동 중단** 및 베트남 등 **해외이전 가속화**로 **국내 기반 축소**

* 일신방직 : 광주 1공장 일부 가동 중단('18.7월, 매출 375억원) 및 베트남 이전 예정
경방 : 광주공장 가동 중단('20.3월, 매출 453억원) 및 베트남 이전 예정

➪ **제품 차별화 및 설비 고도화 등 근본적 체질개선 노력 필요**

○ **(화섬사)** 개도국의 생산증가로 **글로벌 점유율 하락, 범용絲**는 **공급과잉***, **내수부진**으로 **만성적 수익악화, 생산감소**

* '17년 가동률 : 폴리에스터 장섬유(79%), 나일론(46%)

➪ **공급과잉 해소(자율적 구조혁신), 고급원사 개발 및 수요발굴 확대 필요**

○ **(원단) 주력 수출품목**이나, 설비투자 부진, 인력수급 부족, 후진국 대비 **가격경쟁력 상실**, 선진국 대비 낮은 **염색·가공 기술**로 **수출 지속 하락**

* 원단 수출추이(억불) : ('11) 97 → ('13) 94 → ('15) 84 → ('17) 76

➪ **제품 고급화, 인력난 해소(외국인근로자 확대, 스마트 제조 확산) 필요**

### 2. 산업용 섬유 : 생산 22%, 수출 23%, 업체수 8천개

○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글로벌 경쟁력 보유, 탄소섬유 등은 국내시장 협소, 일본의 선점으로 **원천기술 및 신뢰성·Track Record** 등 확보 난관

* 세계 1위 품목(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저융점섬유 등)을 제외하고 선진국 대비 평균 65% 기술수준

➪ **원천기술 및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연계강화 및 국내시장 창출 필요**

### 3. 패션의류 : 생산 41%, 수출 16%, 업체수 25천개

○ **글로벌 브랜드 全無,** 낮은 인건비를 기반으로 **저가 시장봉제** 중심(고부가의류 생산기반 취약)으로 고착화, **차별적인 시장창출 미흡**

* '90년 대비 의류수출액 1/4(80→20억불)로 감소, 고부가의류 생산업체는 5~10%에 불과

○ **국내 생산비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기업영세화,** 설비 **노후화,** 종사자 **고령화, 일감부족**이 심각한 상황

➪ **고급봉제 인력양성, 봉제 자동화로 인력난 해소 및 유턴 촉진 필요**

# Ⅲ.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 비전 및 전략 >

| | |
|---|---|
| 비전 |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으로 탈바꿈<br>글로벌 섬유패션 강국으로 재도약 |
| 추진 전략 | ① ICT 융합 스피드팩토어 확산으로 국내 제조기반 강화<br>② 자동차·항공用 고부가 첨단소재산업으로 구조고도화<br>③ 생산요소 최적화를 통한 자립성장 기반조성 |

**정책 과제**

**< 글로벌 경쟁력 제고 >**

**1. 스피드팩토어로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

① 봉제, 염색·가공 스피드팩토어
② 신발 스피드팩토어
③ 全밸류체인의 통합 스피드팩토어 시스템

**2. 고부가 첨단 산업용섬유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① 첨단 산업용섬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② 안전·국방·수송·난연 분야 섬유소재 경쟁력 제고
③ 범용제품 사업전환 및 업종재편 지원

**< 당면 현장애로 해소 >**

**3. 인력유입 확대를 통한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① 현장인력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② 취업연계, 인력양성, 청년창업 지원 확대

**4.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 제조경쟁력 향상**

① 섬유산업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확대
② 염색업체 환경규제 부담경감
③ 노후·환경설비 교체 지원

**5. 수출 기업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① 원산지 단속 강화
② 해외 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지원



## 1 스피드팩토어로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

※ '스피드팩토어'(팩토리+스토어)의 개념
: 기존 스마트팩토리의 생산공정 자동화 기반 위에 섬유패션산업의 B2C 특성을 살려 매장(스토어)에서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요자 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

### ◇ 봉제 스피드팩토어

□ **(현황)** 대형 봉제업체 **해외이전**으로 국내는 **영세화·고령화** 등 기반 약화

* 국내 전체 봉제의류기업 약 25천개 중 약 90%가 10인 이하(4인 이하 75%) 소규모

□ **(대책)** 국내·외 **프리미엄 중소량 주문을 자동화 로봇***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는 **봉제·의류 스피드제조 시스템** 기술개발** 및 확산***

* 봉제 작업용 생산 로봇 기술 개발, 의류 제조용 물류이송 로봇 등
** 자동화 봉제 기반 스피드팩토어 사업 : '19~'21, 총 85억원('19년 32억원)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19년 3,428억원

○ 특히, 동대문 봉제공장에 **협동로봇을 활용**하여 봉제, 의류, 재단 등 **"작업환경 개선型 모델"** 지원('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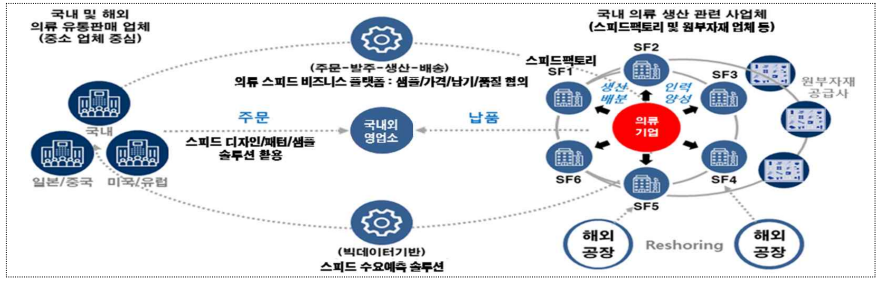
* KT와 APM(의류도매 기업)이 동대문 의류산업에 첨단 신기술인 5G망 기반 협동로봇 투입을 통해 해당 상권 진흥 추진('19.3월 MOU 체결)

○ 자동화 봉제시스템 등 **핵심기술개발***('19~21), **실증라인 구축** 및 시험운영('21), **커넥티드 스피드팩토어** 시스템으로 **유연생산체계** 구현('22~)

* 자동화 봉제 시스템, 다품종 소량 생산용 최적공정설계, 생산관리시스템(주문~품질관리) 개발 등

□ **(기대효과)** 생산효율 향상으로 **국내 제조기반 확대, 국내 U턴**(5개社 이상)을 통한 **국내 봉제 일자리 창출**(1천명 이상) 기대

< 봉제·의류 스피드팩토어 연계·확산 전략 >



## ◇ 염색 · 가공 스피드팩토어

□ **(현황) 염색·가공 산업**은 대표적 **노동집약적 3D 업종**으로 만성 **인력 부족, 임금상승에 취약** ⇒ '11년 대비 **원단 수출 20% 감소**(97→76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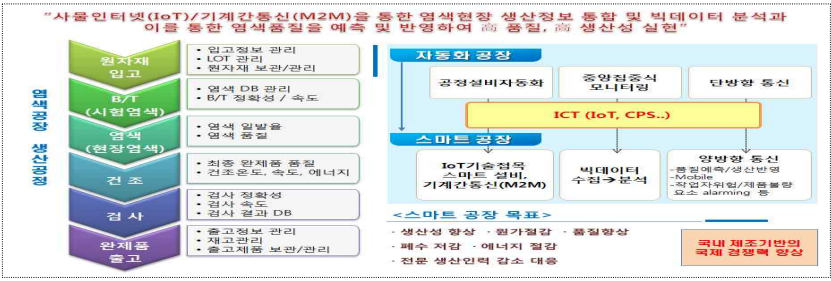
□ **(대책)** 이태리 수준의 **고부가 원단개발**을 위한 스피드 제조시스템 **기술개발*·확산**

* 염색·가공 스피드팩토어 사업 : '19~'21, 총 75억원('19년 23억원)

○ 최적 생산운영 플랫폼 등 **핵심기술개발***('19~'21), **실증라인 구축** 및 시험운영('21), 염색·가공 산단을 중심으로 **업계 확산**('22~)

* 실험실, 전처리, 염색, 기능성 가공 공정용 스피드시스템 및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 염색·가공 스피드팩토어 개념 >**




○ **디지털 염색**(Digital Textile Printing) 설비·핵심 솔루션(잉크, 전처리원단)의 **국산화** 및 **서비스 센터**(디자인·생산·마케팅 지원) 운영('21~)

*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 '17~'21, 총 550억원('19년 150억원)

□ **(기대효과) 생산성 향상**(1.5→4억원/명) 및 **청년 일자리 창출**(1천명 이상)

## ◇ 신발 스피드팩토어

□ **(현황)** '90년대 이후 **해외이전**에 주력, **국내는 글로벌 브랜드의 OEM** 중소기업 위주 ⇒ '01년 대비 **수출 30% 감소**(702→484백만불)

□ **(대책) 아디다스** 수준의 신발 스피드팩토어 **기술개발 및 연구센터 구축*, 확산**

* 신발 스피드팩토어 사업 : '18~'22, 총 230억원('19년 67억원)



○ 조립 자동화 등 **핵심기술개발***('19~22), **실증라인 구축** 및 시험운영('22), 해외 이전 기업 **국내 U턴과 연계**하여 업계 **확산**('22~)

* 신발 갑피, 창 제조 및 조립 자동화, 고객 맞춤형 주문 및 설계정보 생성, 생산 최적화 등

□ **(기대효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 U턴**(7개사), **일자리 창출**(약 1천명)

## ◇ 全밸류체인의 통합 스피드팩토어 시스템

□ **개인맞춤 의류** 등 **다양한 소량 개별 주문**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데이터 플랫폼 기반 협업 시스템** 구현('21~)

* 주문 : Big data 트렌드 분석, 개인별 디자인 추천, AR/VR 주문 시스템 등
생산 : 작업지시서 자동생성, 공정(제/편직, 염색·가공 - 봉제) 협업관리, 원부자재 관리 등 연계
배송 : 개인별 물류 배송 수행 및 DB 관리 등

**< Smart-Connected 프리미엄 의류 통합 생산시스템 모델 >**




# 2 고부가 첨단 산업용섬유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 ◇ 첨단 산업용섬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산업용섬유**(탄소섬유, 아라미드, 부직포 등) 및 **고기능성 의류 소재**(고선명 염색·가공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 확대

○ 국내 **생산업체와 수요 대기업**(자동차, 항공, 국방 등)간 **수요연계 협력사업 지원**(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

* '18년 (R&D) 94개 과제 670억원, (시제품 제작, 사업화) 91개사 32억원
'19년 (R&D) 107개 과제 777억원, (시제품 제작, 사업화) 99개사 37억원 지원

## ◇ 안전분야 섬유소재 개발을 통한 신산업 육성

□ **(현황)** 안전보호 섬유는 국내 기술력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

* 대부분 바스프(獨), 듀퐁(美), 다우케미칼(美), 데이진(日) 소재를 사용한 제품 수입

□ **(대책)**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제품개발** 및 공공기관(소방서-난연·방염복, 경찰, 공공근로-高가시성 작업복 등) 대상 **실증연계 사업** 추진('21~)

*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19~'23, 총 524억원 / 국비 296억원)

□ **(기대효과)** 관련분야 **국내시장 확대, 1천억원/년 수입대체**(50% 가정)

## ◇ 국방분야 섬유 품질향상 및 적시성 제고

□ **(현황)** 군피복류의 원자재(원사, 원단) 사용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 대부분 **저가 외국산 원사·원단을 수입**하여 **염색가공 후 군납**

* 미국의 경우 연방법(Berry Amendment)에 따라 실, 원단까지 모두 미국산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Fiber-forward 기준 적용 중

□ **(대책)** 군 피복류 납품시 **방적(원사)·제직공정 단계**부터 **국내산 우선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19년)

* 국방부는 국방예산(연 66억원↑)이 확보되고, 통상법 위반소지가 없다면(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 검토결과 GATT, GPA(정부조달협정) 등 위반소지 낮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

□ **(기대효과)** 원사, 원단업계 **연간 690억원 매출 증대, 220명 신규 고용 창출**과 설비투자 확대 기대

○ **국내 공급기반 유지**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안정적 조달** 가능

## ◇ 수송분야 탄소섬유 국내시장 확대

□ **(현황)** 국내 탄소섬유 시장은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11년 국산화 성공 이후에도 정체상태, 국내 생산량은 대부분 **수출**

* 국내 생산량 5,500톤 중 내수공급은 110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5,390톤은 수출('15년)



□ **(대책)** CNG 시내버스에 **탄소섬유로 제작된 수송용기**를 부착하는 시범사업* 및 **수소차 고압용기 탄소섬유** R&D** 추진

* 전북, 대구경북 신규 CNG 저상 시내버스에 대해 탄소섬유 용기로 전환 우선지원(대당 약 12백만원)

** 예타사업('21~'30, 2조원)으로 버스용 수소고압용기 및 수소충전소용 고압 복합용기 등 개발 추진

□ **(기대효과)** 국내 **생산 CNG 버스**(3천대/年)에 탄소섬유 수송용기 장착 및 수소차 양산(10만대/年)시 **연 6,360천톤**의 **탄소섬유 시장창출**

## ◇ 난연 섬유소재 국내시장 확대

□ **(현황)** 국내 **난연 섬유소재 사용 규정 미비**로 대부분 **후방염 가공제품* 사용**(80~90%), **국내 난연제품****은 생산의 90%를 **수출에 의존**

* 후방염 가공제품은 시간경과에 따른 성능저하, 화재시 독성가스로 인한 질식사 및 소각시 다이옥신(발암물질) 배출 등 우려 상존, 선진국은 난연소재 사용 의무화 시행중

** 국내 제품(효성, 코오롱, 휴비스 등)은 독일의 Trevira CS 제품(9~12천원/kg)보다 저렴(5천원/kg)하고 동일 난연성능을 가지나, 독일 제품이 난연 外 항균과 발수기능 및 브랜드 밸류면에서 우월

□ **(대책)** **실내장식물**에 대한 **난연제품 규제강화**를 통해 **국내 난연 섬유소재 사용 확대** 방안 검토(소방청 협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 ◇ 범용제품 사업전환 및 업종재편 지원

□ **(현황)** '00년대초 업계차원 구조조정이 글로벌 공급과잉인 **범용絲 편중구조를 해소하지 못해** 화섬업계는 구조고도화 필요성 제기

* '17년 범용絲 생산 9개사 중 7개사 매출감소 및 영업이익 적자(공장 가동률 47~79%)

□ **(대책)** **범용絲**(폴리에스터, 나일론 등)에서 **산업용섬유**(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생산으로 **사업전환 및 업종재편**을 위해 **업계자율**로 컨설팅, 논의 추진

○ 정부는 **기활법**을 활용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산업용 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소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

## 3 인력유입 확대를 통한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 ◇ 현장인력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 **(현황) 염색업계**는 **내국인 취업기피**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외국인력 수요가 높으나, 배정인원 부족으로 **생산차질 호소**

* 인력부족률(섬산련, %) : 제조업(2.6), 섬유(3.5), **염색가공(3.8)**, 편직(3.7), 의류봉제(4.4)

□ **(성과) '19~20년 섬유업종**을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으로 신규 지정(고용부, '19.2.18) ⇨ 섬유업종 전체에 **200여명** 추가 고용 기대

* 산업부·고용부 공동실태조사('18.1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 섬유산업 300개 기업 대상(1.14~25) 인력부족률, 인력부족 원인 등 조사

□ **(추가대책) 성실재입국시** 출국 후 **재입국기간**(현행: 3개월) **단축,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9→E-7-4) **규모확대**(섬유 등 인력부족 업종) 등 추진

* E-9 비자는 최장 4년 10개월 체류가능, E-7-4 비자는 체류상한이 없고 2년마다 심사를 거쳐 비자 연장 가능

### ◇ 섬유패션기업-구직자 연계 지원 확대

□ **(현황)** 청년 미취업률은 높으나, **섬유패션기업은 청년인력 확보에 애로**

* 섬유패션 전공자 미취업률이 48%에 달하나, 업계는 고령화 및 숙련공 자연감소 심화

□ **(대책)** 패션업계 **취업가이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 및 대졸 미취업자 대상 **섬유패션업계 맞춤형 취업연계 교육** 지속 확대

* (18년 성과) 예산 520백만원, 취업 58명 (의류·패션, 염색·편직 등 6개 분야)
(19년 계획) 예산 1,000백만원, 취업 120명 (3D 가상의류, 원사·제직 등 8개 분야)



### ◇ 고급의류 제작 인력양성 확대

□ **(현황)** 일반적으로 봉제는 저임금·열악한 환경으로 **고령화 심각,** 최근 고급의류 제작(샘플제작)을 중심으로 **청년층 관심 고조**

* 20~40대 종사자 비율('17년) : 봉제 18%, 고급의류(샘플 제작) 48%

□ **(대책)** 고급 의류제작기술 교육, 우수업체 연계 현장실습을 통한 **고급 의류제작 기술자 양성** 확대로 신규인력 유입 지원

* (18년 성과) 예산 130백만원, 교육생 24명(수료생 12명 중 창업 9명, 취업 2명)
(19년 계획) 예산 183백만원, 30명 교육 목표

### ◇ 패션제작 마이크로팩토리 청년창업 지원

□ **(현황)** 우리는 선진국과 달리 **의류제작 숙련인력**이 존재하나, 중저가의류 생산 중심구조로 **고급의류 생산기반 취약**

* 의류봉제업체 25천여개 중 고급의류 생산업체는 5~10% 정도로 추산

□ **(대책)** 고급의류 제작 인력양성 과정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 및 장비 무상지원**, 지속적인 일감제공 등을 통한 **창업 지원**

* '19년 패션 제작 창업 인큐베이팅 및 Micro-Factory 창업지원 : 3팀, 317백만원

## 4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 제조경쟁력 향상

### ◇ 섬유산업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현황)**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매출액 대비 **R&D와 설비투자 비중**은 **1.4%, 0.7%**로 제조업 평균(4.2%, 5.8%)의 **1/3, 1/8 수준**('17)

□ **(성과) 섬유 R&D 및 사업화시설투자 공제대상*(6개→10개) 확대**('19.3월)

* 극한성능 섬유(고내열·고내한성), 의료용 섬유(인공혈관 등), 친환경 섬유(생분해성 섬유 등),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 등 추가

□ **(기대효과) R&D 0.82조원, 사업화시설 1.93조원 투자** 기대('19~'23)

### ◇ 염색업체 환경규제 부담경감

□ **(현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년 시행, 기존 설치시설은 '20년부터 적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대폭 강화**

* (기존) 80여개의 설치·관리기준 → (현행) 400여개의 설치·관리기준으로 세분화·강화

* 염색업계는 저장시설 방류벽 등 시설보완이 필요하나, 물리적 공간부족, 비용부담 등 애로

□ **(대책)**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하되, **기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환경부)

○ **환경규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즉각 반영하고, **밀착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에 **T/F 설치·운영**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

### ◇ 노후·환경설비 교체 지원

□ **(현황)** 생산설비 **노후화**로 생산성 저하 및 **환경규제 대응** 미흡

* 대구·경북 1,398개업체 중 17년 이상된 직기가 55% ('17.12월 실태조사결과)

□ **(대책)** 업계수요를 바탕으로 신성장기반자금(중기부), 환경개선자금 융자(환경부), 환경·안전투자지원(산은·기은) 등 **섬유업체 신청 지원 추진**

* 신성장기반자금(60억원 이내, 2.8% 변동), 환경개선자금(50억원 이내, 1.85%), 환경설비(1% 감면)

○ 섬유업계 노후·환경설비 교체지원 **전담조직 신설**(섬산련 내)을 통해 각종 융자지원 사업 **수요조사 및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

□ **(기대효과)** 향후 3년('19~21) 동안 **생산설비 58개 업체(451억원), 환경설비 67개 업체(107억원)** 교체 지원



## 5 수출 기업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 원산지 단속 강화

□ **(현황)** 최근 **동대문 패션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하는 **'라벨갈이' 행태**(대외무역법 위반) 기승

* 옷 한 벌 당 300원~1,000원으로 라벨만 바꿔서 2~5배 비싼 가격에 판매

□ **(대책)** 원산지 위반 **상시 단속 및 처벌 강화,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서울시, 관세청, 및 관련 협단체 등) **합동 캠페인** 확대*

* '18년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5회), 합동캠페인(2월, 10월), 단속(21개 업체, 22천여점 적발)

□ **(기대효과)** 국내 **패션브랜드 및 소비자** 보호, **봉제공장 일감** 증대

### ◇ 해외 마케팅 지원

□ **(현황) 영세기업**의 독자적 **해외 마케팅에 한계, 수출기업 감소추세**

* 섬유의류 수출기업(개) : ('16) 8,243 → ('17) 8,031 → ('18) 7,709

□ **(대책)** 해외 지역 패션전문가를 **마케팅디렉터**(MD)로 활용, 국내 섬유패션 **전시회 확대**('18년 14회 → '19년 16회), **한류와 K-fashion 연계** 등

□ **(기대효과)**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수출기업 **증가세 전환 및 지속**

### ◇ 해외규격 인증 지원

□ **(현황)** 선진국 및 글로벌 브랜드를 중심으로 **에코라벨 등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 **인증 발급·유지비용 부담**이 큰 상황

* 섬유분야 주요인증 규격 : BlueSign, Oeko-tex 등

□ **(대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중기부)에 섬유업체 수혜 확대를 위한 **홍보, 수요조사** 및 **정보·컨설팅 제공** 등 지원 확대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대상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시험, 컨설팅 등)의 50~70%, 최대 1억원 지원

□ **(기대효과)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 섬유패션 수출액 비중('17) : 아시아(65%), 유럽(14%), 북미(10%), 중동(5%), 중남미(4%)

## Ⅳ. 향후 추진일정

| 추진과제 | 시기 | 주관(협업)기관 |
|---|---|---|
| **1. 스피드팩토어로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 | | |
| ① 봉제, 염색·가공 스피드팩토어 | '19~'21 | 산업부, 중기부 |
| ② 신발 스피드팩토어 | '18~'22 | 산업부, 중기부 |
| ③ 全밸류체인의 통합 스피드팩토어 시스템 | '21~ | 산업부, 중기부 |
| **2. 고부가 첨단 산업용섬유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 | |
| ① 첨단 산업용섬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18~ | 산업부 |
| ② 안전분야 국산 소재 신산업 육성 | '19~ | 산업부, 소방청 |
| ③ 국방분야 국산 섬유소재 사용 확대 | '19~ | 국방부 |
| ④ 수송분야 국산 섬유소재 사용 확대 | '20~ | 산업부, 지자체 |
| ⑤ 난연분야 국산 섬유소재 사용 확대 | '19~ | 소방청 |
| ⑥ 범용제품 사업전환 및 업종재편 지원 | '19~ | 산업부 |
| **3. 인력유입 확대를 통한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 | |
| ① 현장인력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 '19~ | 고용부 |
| ② 섬유패션기업-구직자 연계 지원 확대 | '18~ | 산업부 |
| ③ 고급의류 제작 인력양성 확대 | '18~ | 산업부 |
| ④ 패션제작 마이크로팩토리 청년창업 지원 | '19~ | 산업부 |
| **4.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 제조경쟁력 향상** | | |
| ① 섬유산업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확대 | '19.3 | 기재부 |
| ② 염색업체 환경규제 완화 | '19~ | 환경부 |
| ③ 노후·환경설비 교체 지원 | '19~ |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금융위 |
| **5. 수출 기업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 |
| ① 원산지 단속 강화 | '19~ | 산업부, 중기부, 서울시, 관세청 |
| ② 해외 마케팅 지원 | '18~ | 산업부 |
| ③ 해외규격 인증 지원 | '19~ | 산업부, 중기부 |



## 참고 섬유패션업계 현장의 목소리

| 구 분 | 주요 내용 | 추진과제 |
|---|---|---|
| **스피드 팩토어** | • 섬유패션산업에 특화된 스피드팩토어가 없어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 1 |
| **R&D 지원** | • 「섬유생활스트림간 협력기술 협력사업」 등 섬유 R&D 사업 일몰 중단, R&D 지원 확대 필요 | 2-① |
| **내수시장 확대** | • 군 피복류 국산소재 사용 법제화 필요<br>•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을 활용, 자동차, 항공 등 수요산업 연계 공동개발, 사업화 필요 | 2 |
| **근로·인력 현안** | • 내국인 취업기피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외국인력 수요가 높으나, 배정인원 부족<br>• 젊은층의 취업기피로 고용 인력의 고령화 심화<br>• 국내외 주문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환경 악화<br>•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하락,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 3-①,②,③ |
| **환경규제 강화** | • 환경기준 강화로 추가 비용 발생 및 대응 어려움 (장외영향평가, 환경책임보험료, 추가 설비투자 등) | 4-② |
| **금융 지원** | • 섬유업종 생산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설비교체를 위한 금융지원 필요<br>• 미세먼지, 악취저감, 폐수처리 등 환경저감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필요<br>• 산업은행의 여신 유의업종 분류에 따른 융자 제한 (여신 유의업종은 융자한도 제한, 일반적으로 신규대출이 어려우며 이자 등에 추가 가산금리 적용) | 4-③ |
| **수출지원** | •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라벨갈이' 등 원산지 위반 증가<br>•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바이어 등 관련정보 부족<br>• 인증비용 과다 및 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 5-①,②,③ |